

TV 6월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0 채널A 아침뉴스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잘났어 정말>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00 웰컴 투 시월드(재)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활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당신의 여자>
9 00 진실추진 세상보기 황오락의 눈을 떠요	30 KBS 뉴스	00 TV 소설 <삼성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55 58회 현충일 추념식	10 좋은아침 55 현충일 추념식
10 00 신문으로 보는 세상	00 58회 현충일 추념식 45 아름다운 사람들(재) 55 TV동화 빨간자전거(재)	50 지구촌 뉴스	40 정전 60주년 특집다큐 <60년의 약속>	45 정글의 법칙 스페셜
11 00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여풍담당 55 바른말 고운말(재)	10 비타민(재)	40 MBC뉴스 50 리디오스타 스페셜	
12 20 뉴스와이드	00 KBS 뉴스12 10 현충일 특선 앙코르 <그리운 당신 잘나오> (재)	20 불후의 명곡 스페셜		15 SBS 12 뉴스 25 드라마스페셜 <나의 목소리가 들려>(재)
1 20 갈매까지 가보재(재)	00 KBS 걸작선 <적도의 남자>	50 2013 프로야구 <기아vs롯데>	10 무한도전 스페셜	45 2013 프로야구 <삼성vs넥센>
2 30 웰컴 투 돈월드(재)	00 KBS뉴스 10 현충일 특선영화 <포화속으로>		30 주말특별기획 <백년의 유산>(재)	
3 40 이명경의 직언직설				
4 50 김광현의 탕탕평평	10 KBS 네트워크 특선 <필통(必通)>		45 MBC 뉴스 55 나혼자산다 스페셜	
5 00 KBS 뉴스5 1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40 명랑직장백서<열정시대>		30 동물농장 스페셜
6 00 뉴스현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질문 우리 사는 세상	10 생생 정보통 1~2부	15 고향을 부탁해	05 세상발견 유레카
7 10 생방송 오픈 스튜디오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밥상	45 일일시트콤 <일말의 순정>	15 일일연속극 <오로라 공주>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저널 때때때때 20 일일드라마 <웃나미 주의보>
8 20 박종진의 쾌도난마	25 일일연속극 <지성이면 감천>	20 야구가 좋다 50 황금 카메라	55 MBC 특별기획 <구암 허준> 30 컬투의 배란다소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10 00 현충일 기획 KBS 파노라마 50 콘서트 필2		00 수목드라마 <천명>	00 수목미니시리즈 <남자가 사랑할때>	00 드라마스페셜 <나의 목소리가 들려>
11 00 웰컴 투 시월드	30 KBS 뉴스라인	20 해피 투게더	20 황금어장 <우쿨렐레>	20 자기가
12 10 이영동PD 논리로 풀다(재) ①:20 로드다큐<취향>(재)	00 KBS 글로벌24 40 소프츠 하이라이트 ①:00 KBS 뉴스 10 KBS 걸작다큐멘터리 (재)	40 세상의 모든 다큐 <바다의 비행요새 항공모함 2편>	45 MBC 뉴스24 ①:05 스포츠 다이러리 20 MBC 다큐프리임(재)	40 SBS 토론광장

“나만의 냄새가 나는 음악을 만들거예요”

임재범, 내달부터 '걷다보면' 공연 전국 투어

올해 조용필, 지난해 싸이가 가요계 파란의 주인공이었다면 2011년에는 임재범의 재조명이 화두였다. '나는 가수다'에서 포효하는 호랑이처럼 슬픈 음악을 토해낸 그의 무대는 가슴을 뭉클한 만큼 흡입력이 강했다. 오랜만에 서울 강동구 성내동 드림팩토리

건물 지하 연습실에서 만난 임재범은 공연 연습이 한창이었다. 그는 오는 7월 5~6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을 시작으로 가을까지 대전, 대구, 부산, 창원 등 10개 도시를 돌며 '걷다보면'이란 타이틀로 공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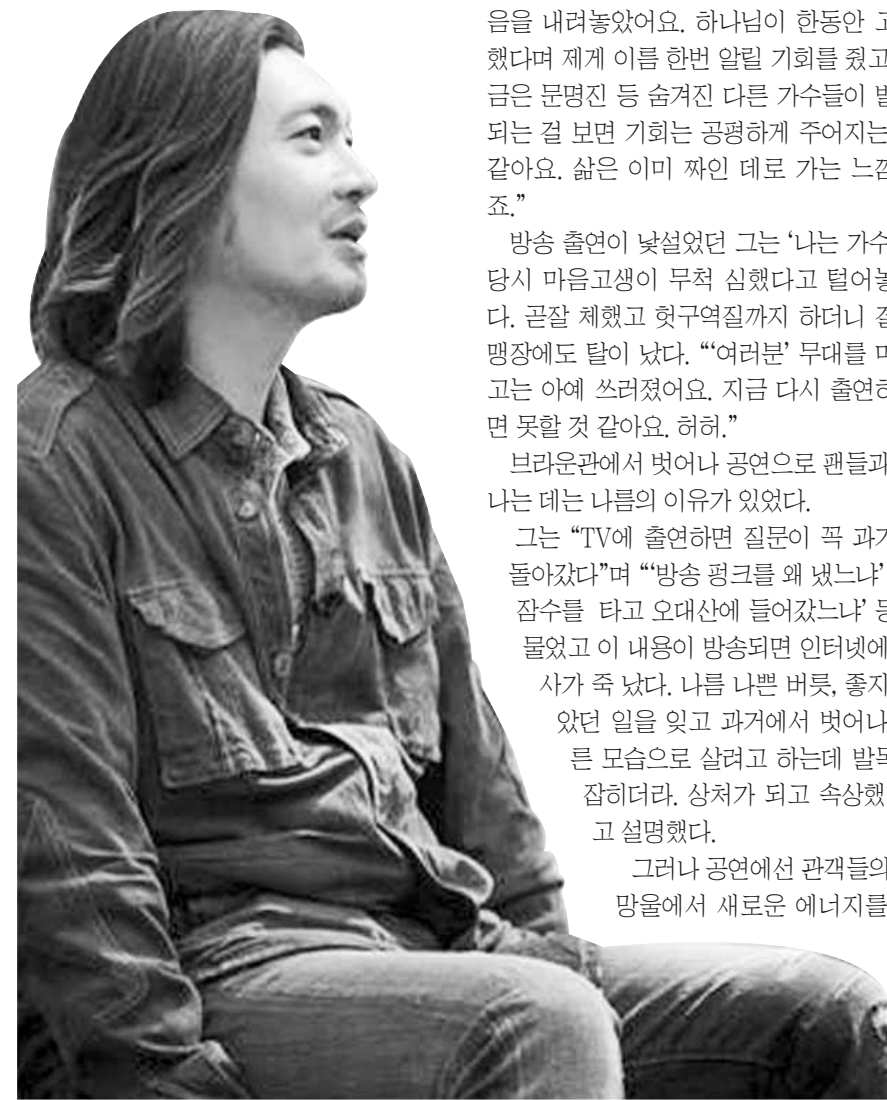
“그때 인기를 유지하려고 발버둥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전 종교적인 반 정도는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이나 한동안 고생했다며 제게 이름 한번 알릴 기회를 줬고 지금은 문명진 등 숨겨진 다른 가수들이 발견되는 걸 보면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삶은 이미 짜인 대로 가는 느낌이죠.”

방송 출연이 낯설었던 그는 '나는 가수다' 당시 마음고생이 무척 심했다고 털어놓았다. 골절 채웠고 헛구역질까지 하더니 결국 맹장에도 탈이 났다. “어려운 무대를 마치고는 아예 쓰러졌어요. 지금 다시 출연하려면 못할 것 같아요. 허허.”

브라운관서 벗어나 공연으로 팬들과 만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그는 “TV에 출연하면 질문이 꼭 과거로 돌아갔다”며 “방송 편지를 왜 냈느냐” “왜 잠수를 타고 오대산에 들어갔느냐” 등을 물었고 이 내용이 방송되면 인터넷에 기사가 죽었다. 나름 나쁜 버릇, 좋지 않았던 일을 잊고 과거에서 벗어나 다른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데 발목이 잡히더라. 상처가 되고 속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연에선 관객들의 눈망울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



을 수 있었다. 받은 만큼 관객들의 마음을 온전히 위로해주고 싶어 공연 제목부터 힐링의 의미를 담았다. 때론 복잡한 심경들도 '걷다보면' 해소되듯이 자신의 노래로 일상에서 지친 사람들을 안아주겠다는 취지다.

2011년 체조경기장 공연에서 록 뮤지션으로서 정체성을 보여줬다면 이번엔 '사랑' 일탈 '잊고 산 소중한 것들' 등으로 주제를 날고구구하고 뮤지컬 적인 요소를 가미할 예정이다. 팬들이 듣고 싶은 노래를 받아 레퍼토리에 더하고 록과 어쿠스틱한 곡들을 고루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전국투어를 마치면 다음 스텝을 밝히기 위해 쉽없이 내달려온 걸음을 잠시 늦출 예정이다. 그러나 시간을 그냥 흘러보낼 생각은 없다.

“시간을 갖고 7집을 만들 생각이예요. 다음 공연을 하려면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데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안 가는 곳에서 공연도 좀 해보고 새로운 걸 섭취하려고요.”

새 앨범에 대한 고민은 꽤 깊어 보였다. 1986년 시나위 보컬로 데뷔해 외인부대, 아시아나 등의 록그룹을 거친 그의 음악 뿌리는 록이지만 대중과의 눈높이를 맞춰야 하니 간극을 메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는 “아직 난 어떻게 대중에게 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전 대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소화 안 되는 빠따까만 내놓고 알아서 먹으라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과정은 그가 '메이드 바이 (made by) 임재범' 음악에 도전하는 자양분임에 틀림없다.

“전 제가 살아온 시대에 감사해요. 샘 쿡, 오타시 레밍, 지미 헨드릭스의 음악을 접할 수 있었으니까요. 또 요즘 세대의 노래들도 CD를 한꺼번에 사서 파악해요. 제 목록에 저장된 것들을 꺼내 임재범만의 냄새가 나는 음악에 도전해야죠.” /연합뉴스

EBS

06:00 건강환 아침	09:40 깨미	14:00 지식채널e	18:30 곤
06:10 한국기행	09:50 지구를 지켜라	14:05 버블버블 언어친구들	18:45 정글북
06:30 미래 직업, 뜨는 직업	10:10 세계대기행	14:35 몬스터 수화나라	19:00 EBS 뉴스
07:00 곤	<유라시아의 숨겨진 보물, 조지아 4부 - 부활의 축제>	15:00 제로미오의 모험	19:20 EBS 진중기획
07:15 정글북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30 비두와 친구들	19:25 지식채널e
07:30 마야의 모험	<인생경의 풀나게 준비한 식탁 - 파닭과 베이컨 숙주 볶음>	15:45 마야의 모험	19:30 세계의 산
07:45 부흥! 부흥! 부루미즈	11:20 부모	16:00 당동영 유치원 1~2(재)	20:20 경이로 자연의 세계
08:00 당동영 유치원 1~2	12:00 (어름침 냉장고 청소 수납 법)	16:20 피들리팝	20:50 세계대기행
08:20 시계마을 타기톡	12:00 EBS 정오 뉴스	16:30 꼬미버스 타요(재)	<베네룩스 3국>
08:35 꼬미버스 타요	12:1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홍서)	16:45 충추는 골공야재	21:30 한국기행(분화)
08:50 충추는 골 공야	12:1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홍서)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21:5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홍서)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3:05 연중기획 <폭력없는 학교>	17:10 시계마을 타기톡(재)	22:45 극한직업
09:15 무비무비 눈보리		17:25 부흥! 부흥! 부루미즈(재)	23:15 EBS 인문학 특강
09:30 피들리팝		17:40 생방송 특목 보너하니 1~4	24:05 EBS 스페이스 광장 1~2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기본과 특별한	<한국사> 11:40 <화학II>	07:00 공인 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5:20 초등기말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특강
00:50 내신 6강	<수학I> 12:30 <수학II>	07:30 EBSe 생활영어	<과학 3-1>
01:40 포스	<문학I> 13:00 <생명과과학II>	08:00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대비 강좌	15:50 <과학 4-1>
02:30 <적분과 통계>	14:00 <지구과학II>	08:30 국제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시험 대비	16:20 <과학 5-1>
03:20 <기하와 벡터>	15:00 <수학I A>	09:10 TV 중학 <국어I>	16:40 <과학 6-1>
04:10 <기하와 벡터>	16:00 <수학I B>	09:50 <수학II>	
05:00 <수학II>	17:00 <수학I A형>	10:30 중학개념 끝내기 <한문>	17:20 초등개념 잡기(사회)
05:50 <수학II>	18:00 <수학I B형>	10:30 중학개념 끝내기 <한문>	18:00 동물대탐험 <구리구리 명명>
06:40 <영어독해의 기본I>	19:00 <수학II>	11:10 TV 중학 <도덕I>	18:30 수학의 원리 마더미터카 <수학II-1>
07:30 <화학I>	21:00 <수학II>	11:50 TV 중학 2학년 <과학2>	19:20 숲 속 친구 피파볼라 <도덕3>
08:20 <수학I>	21:50 <수학II>	12:30 <과학2>	20:00 왕초보 중학영어
09:10 <생명과과학I>	22:00 <수학II>	13:10 TV 중학 3학년 <도덕3>	20:40 초급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0:00 <지구과학I>	23:00 <수학II>	13:50 <수학II>	21:20 <수학II>
10:50 <물리II>	23:55 <수학II>	14:30 <수학II>	21:20 <수학II>
		14:50 <수학II>	22:40 TV 중학 3학년 <수학3-1>
		15:10 <수학II>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6일(음 4월 28일 癸卯)

36년생 새어나가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쓰라. 48년생 대충 넘길 일이 아니다. 60년생 전환점을 마련할 만한 단계에 임하라. 72년생 좀 더 탄력적으로 대처해야겠다. 84년생 상호 관련 되면서 의존하게 되리라. <b>행운의 숫자 : 07, 82</b>	42년생 요령에 따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54년생 지금의 고통은 내일의 행복을 기약하라. 66년생 결가지를 쳐서 올곧게 자라도록 해 줘야겠다. 78년생 잘 가꿀 줄 아는 성실함이 필요하다. <b>행운의 숫자 : 58, 26</b>
37년생 상대의 말을 듣고 빙그레 웃는 모습이야. 49년생 뜻밖의 이익을 얻는 기쁨이 상당하다. 61년생 비슷한 처지여서 쉽게 공감하라. 73년생 이미 틀어진 지 오래되었다. 85년생 경제성과 실익을 우선해야 할 때다. <b>행운의 숫자 : 72, 35</b>	43년생 많은 의미가 깃들여 있다는 것을 알라. 55년생 도약을 위한 고통은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 67년생 비틀어지거나 어그러져서는 아니 된다. 79년생 기본 진로는 안전하지만 비보호 좌회전도 보인다. <b>행운의 숫자 : 27, 78</b>
38년생 현재는 순풍일지라도 가변적이다. 50년생 지금 도모하지 않는다면 철회의 기운을 부르리라. 62년생 기존의 것에 신선한 요소가 가미되는 모습이야. 74년생 자제하지 않는다면 불미스러운 형태로 비화 되리라. <b>행운의 숫자 : 43, 55</b>	44년생 동선이 예측 불허하니 어디로 뿔치 모를 일이다. 56년생 옛 인연이 크게 도움이 되리라. 68년생 열정을 쏟아 부어야 만 갈사로 연결시킬 수 있다. 80년생 혼란스럽게 여기지 말고 초심으로 결정하면 된다. <b>행운의 숫자 : 34, 89</b>
39년생 없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귀중한 가치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51년생 허가 한 개이고 귀가 두 개인 이유를 깊이 깨닫자. 63년생 모순된다면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 75년생 득이 될 만하다. <b>행운의 숫자 : 83, 50</b>	45년생 마음이 빼앗긴다면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다. 57년생 절대적인 기준과 자기 확신이 필요할 때다. 69년생 순간의 오만에 좌우된다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81년생 간략하게 핵심을 짚어 주는 것이 좋다. <b>행운의 숫자 : 68, 41</b>
40년생 상대의 입장과 체면을 고려해 주는 것이 좋다. 52년생 상대는 몇 수 앞서가고 있는 고수임을 알라. 64년생 크게 인정받거나 수상할 수 있는 영광이 보인다. 76년생 모색하다 보면 오랜 숙원을 이루리라. <b>행운의 숫자 : 96, 61</b>	46년생 빨리 포기할수록 이익이다. 58년생 후회할 때는 이미 늦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70년생 조짐이 보이면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 82년생 천천히 부드럽게 구부리면 충분히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 <b>행운의 숫자 : 90, 14</b>
41년생 무의미한 판공을 만들 수도 있다. 53년생 쓸 곳은 많은데 없어서 곤혹스럽기 그지없다. 65년생 들인 노력과 얻은 결과의 비율을 냉정하게 따져 봐야겠다. 77년생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띤다. <b>행운의 숫자 : 51, 67</b>	47년생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야. 59년생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수용하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71년생 전에 비해 못했던 과격적인 형태이다. 83년생 마음을 굳게 먹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b>행운의 숫자 : 42, 93</b>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다큐 '강선장', 카를로비바리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

장애 딛고 일어난 목포의 어부 사연 답아

목포항을 배경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강선장'이 오는 28일 개막하는 제48회 카를로비바리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다고 영화 제작사인 민치엔필름이 5일 전했다.

체코에서 열리는 카를로비바리국제영화제는 '동유럽의 칸 영화제'로 불리는 유서 깊은 영화 축제다.

이창동 감독의 '박사사탕'(1999)이 영화제에서 심사위원특별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하면서 한국영화가 유럽에 본격 알려지게 된 인연도 있다.

'강선장'은 올해 아시아 영화로는 유일하게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에 진출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고깃배를 타는 주인공 강선장(강삼국·목포시 산정동)과 아버지의 사고 이후 야구선수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아들의 상처를 담은 작품이다.

연출을 맡은 원호연 감독은 KBS 다큐멘터리 '인간극장' PD로 일하던 2008년 이 프로그래머에서 강삼국씨의 사연을 5부작으로 소개한 바 있다.

이후 본격적인 다큐멘터리 영화 연출을 시작한 감독은 3년 동안 강삼국씨와 배 위에서 생활하며 작품을 완성했다. 영화 속 강선장은 크레인 사고로 양쪽 다리를 잃어 1m 남짓의 키를 가진 작은 어부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그가 바다 위에서 누구보다

당당한 어부인 것은 그의 곁을 지켜주는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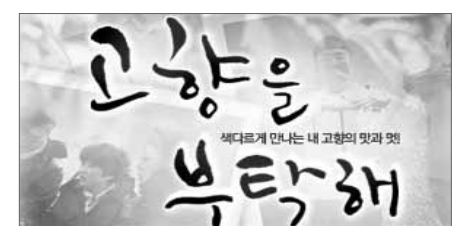


죽이 있기 때문이다. 영화 속에서 강 선장의 장애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감독은 그를 장애의 틀에 가두지 않고 한 사람의 아버지, 그리고 뱃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뒤 네덜란드 아시아영화제, 남아프리카 더반국제영화제에 잇따라 초청됐으며, 지난달 30일 개막한 '인디포럼 2013'에서도 상영됐다. /연합뉴스

TV 하이라이트

'슬픈 한끼' 60년전 밥상의 추억 토종별 따라가는 달콤한 여행 지구촌 곳곳의 고향을 찾아서



한국인의 밥상(KBS 1TV·오후 7시30분) = '가장 슬픈 한끼 - 전쟁과 밥상'편. 처참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우리는 먹어야 했다. 6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가슴에 품고 사는 황영자 할머니. 스물여섯 짝은 새댁이 아흔을 바라보는 할머니가 되어 버린 세월동안 우리의 밥상은 어떻게 변화왔을까?

50년대 말, 미8군 쓰레기 처리장이 설치되고 미군들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장으로 모였다. 이를 끓여 만든 것이 꿀풀이죽이었다. 허기진 사람들은 이 죽을 먹기 위해 줄까지 서야 했고 꿀풀이죽이라는 힘찬 이름 대신 UN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차려 낸 밥상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제는 너무나 화려해진 우리의 밥상에 남아있는 전쟁의 기억을 따라가 보자.

고향을 부탁해(MBC TV·오후 6시15분) = 국내 풀 생산량 중 토종풀이 차지하는 비중은 1%다. 그 귀한 풀을 채취하기 위해 산 깊은 오지마을 양령 산삼리로 떠난다. 험한 산길을 구석구석 누비며 각종 풀을 채취하는 국산 토종풀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최상급의 토종꿀. 적은 양의 귀한 꿀만 만큼 맛과 효능도 당연 최고다.

각양각색의 달콤한 꿀 맛보기. 토종꿀을 듬뿍 넣은 건강 꿀 밥상까지 이번 편은 토종꿀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양령 꿀벌 여행이다.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인 도사리 마을에는 70가구 180여 명이 들성들성 모여 산다.

평생 산골에 살면서 자연과 함께 소박한 삶을 꾸려나간 도사리 마을 최고의 손맛 김영자 할머니. 더위에 지친 기력 회복을 도와 줄 할머니의 야심 찬 보양식이 공개된다.

세계의 산(EBS TV·오후 7시30분) =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산악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봉우리들이 있다.

때로는 어머니마냥 높이고 특이한 지형으로, 때로는 고도마다 달라지는 환경으로, 때로는 때 묻지 않은 자연으로 세계적인 고봉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10부작 다큐멘터리 '세계의 산'은 세계 각지의 유명한 산들을 찾아가 직접 올라보는 프로그램이다. 산에 기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과 독특한 자생 동식물도 훌륭한 볼거리다.

이번 회에서는 전 세계 열대지방에 자리잡은 봉우리 중에서 가장 높은 우아스카란을 소개한다. 해발고도 6768m의 우아스카란은 페루 북부에 자리잡은 산군인 코르디에라 불랑카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이자 페루 최고봉이기도 하다. 열대지방에 우뚝 솟은 하얀 봉우리 우아스카란을 소개한다.